

인구절벽 극복·일자리 늘리기에 명운 건다

고흥군 내년 주요업무 보고회

‘30년 내 사라질 위험이 높은 전국 84개 시·군 중 2위.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과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

통계수치로 본 고흥의 현실은 절박하다. 이 때문에 최근 열린 ‘2018 주요업무 보고회’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않으면 고흥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인구 절벽 현상을 극복할 일자리 창출·관광 정책 및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지역 공약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실천 과제 등을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짚고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일자리 늘려 복직이는 고흥으로=고흥군은 내년 부지 기반 조성이 마무리되는 동강농공단지와 고흥정정식품단지가 100% 분양으로 262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봤다는 점에서 동강농공단지 내 기업들이 모두 들어서면 900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게 고흥군 판단이다.

또 유망중소기업(3개)·전남형 중소기업(2개)·글로벌 중소기업(1개) 발굴과 40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는 전남 중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에도 관심을 기울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특색있는 고흥으로=고흥군은 지역 명물인 ‘전통시장 생선구이’를 브랜드화해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내년부터 어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착수, 생선구이 장옥(5동)을 새로 건립하고 기존 생선구이 점포(8동) 시설을 개조,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지원기로 했다.

고흥군 풍양면 유자 주산지 일대를 6차 산업화 지구로 조성하는데도 국비와 군비를 30억원을 투입해 체험관광 콘텐츠·인프라 구축, 수출용 가공시설 최적화 사업을 지원기로 했다.

동강농공단지 분양·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 주력

5개 권역별 관광자원 확충...관광객 500만명 유치



고흥군은 최근 고흥문화회관에서 인구 절벽을 막고 관광객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주민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살기좋은 고흥 만들기’를 위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 대표축제로 자리잡은 우주항공축제와 나로우주센터 전경.

◇가고싶고 머무르고 싶은 고흥으로=고흥군은 ‘고흥 관광 2000만 시대’ 비전에 따라 내년도는 관광객 500만명을 불러들인다는 ‘거창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나로도·팔영산권과 소록·거금도권, 고흥만·북부권 등 5개 관광권역별로 관광자원을 확충, 발굴하고 코레일, 여행사와 연계한 테마상품 개발로 권역 간 네트워크를 구축기로 했다.

올 해 열린 고흥우주항공축제 기간 방

문객들의 91%가 외지인들인 점을 감안, 축제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내년 우주항공축제를 순수과학체험축제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전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특산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제 2의 대표 축제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소록도 관련 관광객 증가에도 체류형 관광객이 낮다는 점을 감안, 내년 4월까지 40억을 들여 녹동항 해상공원 일대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여기에 계속 사업인 ▲야생화의 섬 ‘에도’ 관광자원화 사업 ▲나로우주센터 힐링 트래킹로 조성 ▲연흥도, 가고섬은 섬가꾸기 조성 사업 및 도덕면 용동리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내년 말 완공되는데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흥권역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사업’도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용역 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국비 390억원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휴게소 인근 부지에 조성할 ‘고흥군 힐링 해수탕 사업’도 ‘2000만 관광객 시대’에 필요한 체류형 휴양관광시설이라는 점에서 내년 3월 공사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군은 이와함께 도덕면 용동리 일대 150개 객실과 야외수영장 등을 갖춘 ▲선밸리 콘도미니엄(∼2018년), 과역면 백일리 일대에 부티크 호텔과 커피농장 체험시설 등을 갖춘 ▲휘게·라이프 아일랜드(∼2024년), 영남면 남열리 일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2020년), 동일면 봉영리 일대 해수사우나 시설 등이 들어서는 ▲씨사이드 관광휴양지(∼2020년) 등의 관광 인프라(숙박시설 1488실)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각오다.

고흥군은 이날 발표한 ▲일자리창출 24건 ▲관광 200만 시대 44건 외에도 ▲고흥 무인기생태계 구축과 고흥만 첨단 스마트팜단지 조성 등 국정과제 14건 ▲서민사책 67건 등 9800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310건의 주요업무계획과 추진 일정, 예산 확보 여부 등을 검토,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내년은 ‘하이 고흥, 해피 고흥’이라는 슬로건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해”라며 “충실하고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섬진강천문대 28일 ‘가족 과학 탐험’ 행사

가족들이 가을 밤하늘 별자리를 보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2일 곡성군에 따르면 섬진강천문대 <사진>는 오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을 받아 ‘우리 가족 과학 탐험대’ 행사를 연다.

어른들에게는 섬진강 위로 총총히 떠 있는 별을 통해 어린 시절 밤에 대한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우주시대를 살고 있는 미래 꿈도 그려볼 수 있다.

섬진강천문대는 국내 순수 과학기술

로 제작한 600mm 천체망원이 설치된 주 관측실을 비롯, 천체투영실, 각종 천문자료 등을 갖췄다. 인근에 위치한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등 체험이 가능한 ‘곡성섬진강기차마을’도 둘러볼만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가의 천문 강연, 달의 모습을 만들어보는 ‘나만의 달 만들기’, 별자리에 대한 설명과 야간 관측 체험 등이 진행된다. 초·중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전 전화예약제로 운영된다. 문의 061-363-8528.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구례예술인마을 28일 오픈스튜디오

구례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을 들여다보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22일 구례군에 따르면 ‘2017 구례예술인마을 오픈스튜디오’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문을 여니 예술이 춤춘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 입주 작가들이 작업 공간을 공개, 지난 1년 간의 작품 활동을 선보이게 된다.

관람객들은 작가들의 제작 공간을 살펴 보면서 작품을 놓고 대화를 나누는 한편, 프리마켓, 오페라 공연, 예술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

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은 매주 토요일 자신들의 제작 공간을 개방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도자기 만들기, 추상화 그리



기, 판화작가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놓는 한편, 다양한 아트상품을 선보여왔다. 문의 061-781-0688.

/구례=이진택기자 ijt@

보성군문화회관 23일 지역민 문화예술 교육 발표회

보성 지역민들의 끼를 엿볼 수 있는 문화 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보성군은 23일 오후 7시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동네 한바퀴’ 발표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지역민 300명이 지난 4월부터 31차례에 걸쳐 갖고 닦은 문화·예술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다.

‘동네 한 바퀴’는 ‘문화회관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라 지역민에게 피리·가야금·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왔다.

지역민들은 이날 피리, 가야금, 판소리, 가야금 병창 등을 선보이게 된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문의는 보성군문화예술회관(061-850-8660∼2)으로 하면 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하나봉’ 품질 경쟁력 높이기 팔 권었다

당도·산 함량 출하기준 제한

고흥군이 명품 ‘하나봉’(사진)의 품질 경쟁력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2월 본격 생산되는 하나봉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당도는 13브릭스(Bx)

이상, 산 함량 1.0% 이하를 출하 기준으로 삼아 재배 농가들을 상대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전국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은 고흥지역에서 생산되는 하나봉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당도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입소문이 나왔다.

고흥에서는 40여 농가가 11ha를 재배

해 연간 300여t의 하나봉을 생산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본격 수확에 들어간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 지역민들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키워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상무지구 상가 매매

시청 1분. 금용가대로변

현대아파트 후문 앞

8층 중 4층 (45평)

내부깨끗 / 주차 가능

보 2천 월 100만

→ 매가 1억9천 (용7천)

직매 010-6670-9800

수기동 상가 매매

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

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

보 1천 월 60만

매가 9천8백 (용5천)

직매 010-6670-9800

경매 (주)대신경매

1) 동구 총창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금남로 4가역 1분
(대형 주차장있음)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2)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3)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4) 동구 서석동 (주택)
토지 153평 건물 50평
서석초, 동구청 1분 (조선대 3분)
감정가 4억9천 → 최저가 4억9천

5) 나주 경현동 (4층 상가 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위치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9억9천

6) 전주시 완산구 전동 (3층 상가건물)
토지 268평 건물 528평
한옥마을 인근 (월세 1천만 이상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40억

010-7384-7800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